

News

4대 은행 모두 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원 아래로

조선비즈

국민은행, 신규 취급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 축소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조치
대출 가뭄'에 대한 공포감 확대로 미리 대출 받아놓으려는 가수요가 마이너스통장 중심으로 급증... 엄격하게 한도 관리하려는 측면

부산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받아

연합뉴스

부산은행, 최근 라임펀드 판매 관련한 금융위의 기관경고 조치 확정...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 분쟁위 조정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배상 관련 소송 가능성

인행 삼국지 막 오른다... 토스뱅크, 내달 5일 출범

머니S

토스뱅크 오는 10월 5일 정식 출범 전망... 신용대출 최저금리 연 2.7%, 한도는 최대 2억 7,000만원, 마이너스통장 금리 연 3.2~11.31%로 책정
연말까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1,636억 원 공급 예정... 비중을 올해 말 34.9% 맞추기로 금융당국과 약속

금융당국,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가닥 '속도 잡아라'

더벨

금융당국, 연내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계획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곳들의 경우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 쌓도록 할 방침... 은행권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통해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자체 경감하는 유인체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뜻옴선 분쟁'서 승소... ICC "이자지급 의무 없다"

머니S

어피티컨소시엄, 2012년 교보생명에 1조 2,000억원 투자하며 뜻옴선 확보... IPO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10월 뜻옴선 행사하고 이듬해 3월 ICC 중재 신청
ICC,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 9,000원 가격에 뜻옴선 매수 및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급전 구하러 보험사로 몰리나

뉴시스

2분기 대출채권 잔액 260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5조 2,000억원 증가...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 영향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보험사에 대출막힌 차주들이 몰려... 대형 보험사들 상대적으로 건재해 대출 중단 검토하지 않고 있어...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공식 채택 앞두고 5만2000달러 돌파

뉴스1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공식통화 채택을 앞두고 장중 5만 2,000 달러를 돌파하는 등 랠리... 공식통화 데뷔를 앞두고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 운동
개인투자자들 레드 증권방에 모여 30달러 어치 비트코인 매수 운동 펼치고 있어... 한국 업비트에서도 전일 대비 1.28% 상승한 가격에 거래

올해는 美 'IPO의 해'...역대 최대 규모로 144조원 조달

한경글로벌마켓

CNBC에 따르면 향후 4개월 간 약 90~110건의 IPO 예상...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기업들이 하반기 IPO를 앞두고 있어...
2021년 약 144조 6,800억원 상당의 자금 조달될 예정... 사상 최대 규모... 총 970억 달러에 달한 2000년 닷컴 버블 시대 넘어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